

지체장애인의 의복착용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명숙 · 안정숙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I. 서 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요인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일상생활 의복현황 및 의복형태를 조사하고, 의복구입 및 착용 시 문제점,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및 소재 등 의생활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의복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정의, 지체장애 종류 및 특징과 장애인 의복을 연구하였다.

II. 본 론

연구대상은 일산직업전문학교와 국립재활원, 삼육직업전문학교 200명의 훈련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남녀의 비율 75:25, 연령은 20~30세까지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장애등급은 3급, 학력은 고졸, 경제수준을 50%가 “하”로 나타났다.

1. 장애요인에 따른 의복착용시 문제점은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의복현황 및 의복형태에서 대부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나타났으나 6%는 화장실에서 옷을 주체를 못하거나, 운동화 끈을 맬 수 없어 벨크로 사용을 원하는 등 일부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의복별 불편사항은 티셔츠에 대한 불편은 목둘레와 길이에, 청바지는 허리둘레, 바지통, 접퍼는 소매길이와 품에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장애인은 장애부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스커트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류별로 불편함을 느끼는 의복은 평상복, 내의, 운동화, 작업복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지체장애인의 의복구매 실태 및 착용 시 문제점 조사에서는 장애부위를 덮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스타일과 면티와 청바지, 셔츠와 바지를 주로 착용하였고 간편한 휴식 혹은 허리가 고 무릎 처리된 체육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의복은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이 구입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이 사서 입었다. 또한 기성복을 사서 입었으며 왜소장애인이나, 전단장애인들은 수선전문점이나 세탁소에서 수선해 입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학생들은 보조기부분 옷감이 잘 찢어져서 질긴 옷감을 원하고 있으며, 평균신장 164cm, 체중 58.6kg이며 옷의 평균 크기는 여자대상자 치수는 66, 남자대상자의 치수는 95와 100으로 몸에 맞게 입고 싶어했다. 의복구입시 절단장애인은 장애부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소매나 바지길이를 길게 입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싫었고 또한 과잉친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불편사

항과 편의시설부족, 이동 시 불편함 등 실제적인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다. 특히 왜소장애인은 의복상품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상품에 대한 신뢰와 가격,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경우 반복구매를 하고 싶어 하였다.

3. 지체장애인의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및 소재에서는 장애부위를 덮을 수 있는 여유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의복구입시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디자인, 유행을 중시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재, 색상을 중요시하였다. 흰색과 검정색 등의 단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기하학적 줄무늬를 다음으로 좋아하였다.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이 좋은 소재를 가장 선호하였다.

상하가 다른 색의 배색이면서 동일계통의 유사색 대비를 선호하였다. 여밈 부속으로는 지퍼와 벨크로를 가장 선호하였다. 체형에 맞는 맞춤복을 입는 경우가 14%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시장체제로는 맞춤복을 입기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왜소 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체장애인의 의복개선 사항으로는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게 한다면 이보다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도 정상인과 똑같이 유행에 맞춰 장애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싶어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의류전문점이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내의류와 웨딩드레스 역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요구하였으며 왼손마비자의 안주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주머니를 필요로 하였다.

행정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기성복을 사 입으면 동사무소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의류회사에서 소수의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의복착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Ⅲ. 결 론

미국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는 전용재봉사를 고용하여 학교의 교복을 그 특징을 살리면서 장애어린이의 개인에게 적합한 옷을 개조해 주고 있으며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의복전문점이 있어 소수장애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이니 만큼 장애인의복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정부의 출연기관이 장애인들의 직업교육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에는 4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의상디자인공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시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경증 장애인은 취업을 하여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체마비로 이동이 불편하지만 양손기능이 양호한 중증의 장애인들은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이들에게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작업장소만 제공된다면 훌륭한 기능공이 될 수 있다. 의상을 공부한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을 만들어 특수의복이 필요한 이들의 옷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직업을 마련하여 삶의 터전이 될 것이며 특수의복이 필요한 지체장애인에겐 실비로 의복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언을 한다. 후속조치로 각각의 다른 체형의 연구나 의복의 구체화와 치수의 세분화를 위한 작업과 장애별 필요한 맞춤의복을 제작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